

목포해수청, 바다의 날 맞아 정화활동 및 캠페인 실시

- 목포항 평화광장 인근 정화활동 및 해양 캠페인 전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문수)은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 바다주간을 맞아 5월 31일(화) 14시부터 목포항 평화광장 일대에서 “해양정화활동 및 바다사랑海 캠페인”을 실시했다.

목포해수청, 서해어업관리단, 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환경공단, 해군제3함대 등 15개 기관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등을 알리는 해양 캠페인과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건강도 챙기는 줍깅 챌린지(줍기+조깅)를 병행해 전개했다.

한편 목포해수청은 2022년부터 매달 평화광장 외에도 페스티로폼과 플라스틱류 등이 밀려오는 해안가를 대상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이를 지속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김현성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해양정화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책임자	과 장	김현성 (061-280-1670)
		담당자	주무관	김지환 (061-280-1675)

참고

해양정화 활동 및 캠페인

